

제 19회

수선포럼

일시: 2023. 11. 1(수). 11:30~13:00

장소: 사회과학연구원 Conference Room (수선관 901)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제 19회 ‘수선포럼’에 초대합니다!

‘수선포럼’은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를 교류하고
강건한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사회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인 이해나 교수님을
연자로 모시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과 건강불평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수선포럼은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2023년 2학기 수선포럼은 ‘공동체와 사회과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중견 및
신진연구자들을 두루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11월 1일 수선관에서 뵙겠습니다.

사회과학연구원장 최훈석 배상

- 발표: 이해나 (사회학과)
- 제목: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과 건강불평등 (뒷 장에 초록있습니다.)

※ 금번 행사는 주최측에서 준비한 샌드위치와 함께하는 브라운 백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사회과학연구원 | 용정순 박사 (thfqldkf@skku.edu / 010-2761-3586)
사회과학행정실 | 박찬환 계장 (hwan830@skku.edu / 02-760-0935)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과 건강불평등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노동인구 중 고령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넘는다. 하지만 지난 20~30년동안 우리 사회에 ‘연령주의(age discrimination)’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노인’은 쓸모없고, 능력 없고, 부담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중고령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 경험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은퇴 후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2006-2020)를 사용하여 연령차별이 노년기 고립감, 우울감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 연령차별의 효과가 사회참여 및 거주지역과 같은 사회구조적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내지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정책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